

## 중국의 서사 전통과 현대화

박 지 현\*

## &lt;目次&gt;

I. 들어가며	IV. 제국의 즐거움: 문학서사
II. 제국과 함께 시작되는 서사: 역사서사	V. 제국에의 추억: 서사의 복원과 재생산
III. '저 세계'에 대한 제국화의 방식: 종교서사	

## I. 들어가며

전통시기 중국에서 서사는 문학의 한 범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로 역사의 영역에서 인식되고 언급되던 개념이었다. 서사는 역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런 만큼 서술 내용의 '사실성(reality)'이 서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자 가치로 인식되었다. 허구적인 서사는 그것이 허구임이 밝혀지는 순간 서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오직 '장자우언(莊子寓言)'과 같은 알레고리적 서사만이 그 허구성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었다.<sup>1)</sup>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전통적으로 중국의 문장은 '입언(立言)'과 '기사(記事)'로 분류된다. 입언이 각종 제자서(諸子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기사는 『좌전(左傳)]과 『국어(國語)]와 같은 역사서를 가리킨다. 역대 왕조사 속에는 방대한 당시 도서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사적 성격의 서적들은 대부분 '사부(史部)' 속에 포함되었다. 다만 노신(魯迅)도 지적하고 있듯이(조관희 역주, 『중국소설사략』,

실제로 전통 왕조 시기 말엽인 명청대(明清代)에 와서 ‘사대기서(四大奇書)’로 대표되는 ‘허구적 서사(fictional narrative)’들이 확대된 출판 시장을 통해 대거 생산되고 유통되었지만 20세기 전까지 그러한 서사들을 문학의 한 장르 내지 가치 있는 서사의 한 유형으로 인식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는 끊임없이 역사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뛰어난 문학서사 작품을 탄생시켰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대중화되고 상업화된 도시 문화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을 뿐 주류 지식인들의 시선은 대체로 냉담한 것이었다.<sup>2)</sup>

애초에 역사의 영역에서만 인식되던 중국의 서사는 동한(東漢) 시기 불교의 전래를 계기로 일대 중요한 전변을 맞이한다. 불교 경전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한 불교 서사의 세계는 그 전까지 ‘현실 세계’의 서사에 집중되어 있었던 지식인들의 관심을 ‘저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시켰다. 기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영혼불멸의 관념과 장생불사의 추구는 새로운 불교의 서사 세계와 접촉함으로써 더욱 확장되고 구체화되어 비교적 체계적인 신의 세계, 신선의 세계, 그리고 다양한 귀신들에 관한

1998, pp.21-31) 그 서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 서적은 ‘사부’ 속에 편입되지 못하고 종종 ‘자부(子部)’ 내의 ‘소설가(小說家)’로 분류되곤 했다. 초기 목록서에 나타나는 ‘역사’와 ‘소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훈, 『고대 중국의 소설 관념과 기원에 대한 연구-고대의 목록서에 보이는 역사와의 관련성을 찾아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참조.

2) 명대(明代)에 ‘사대기서(四大奇書)’라 불리는 백화장편소설이 나온 이후로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 지향의 서사관은 몇몇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강한 도전을 받게 된다. 풍몽룡(馮夢龍), 김성탄(金聖歎), 이지(李贄), 모종강(毛宗崗)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지식인들은 이러한 허구적 문학서사 작품이 보여주는 미학과 도덕성을 인정하고 비평했다. 하지만 이들의 작업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가 기존의 전통적인 사대부들의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내용’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 문학서사 혹은 서사의 한 양식으로서 ‘소설’이라는 것의 독립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서사에서 허구가 지니는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전통적인 ‘문장’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서사에 대한 전통성의 확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홍상훈,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pp.151-159 참조.

이야기를 생산하게 되었다.<sup>3)</sup>

흔히 중국소설사에서 ‘지괴(志怪)’라 불리는 이러한 ‘종교적 서사(religious narrative)’들은 한대(漢代) 이후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를 거치는 동안 가장 성행했다. 지괴(志怪)는 현실 세계보다는 저 세계에 서사적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역사서사와 구분된다. 또한 허구가 아닌 사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문학서사와도 구분된다. 필자는 전통 시기 말엽 비교적 완전한 문학서사가 탄생하기까지 중국의 서사 전통은 ‘사전(史傳)’으로 대표되는 역사서사와 ‘지괴(志怪)’로 대표되는 종교서사로 대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중국소설사에 나타나는 주된 입장 또한 이러한 ‘사전(史傳)’과 ‘지괴(志怪)’의 두 서사 영역이 중국의 소설문학을 탄생시켰다고 보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두 영역의 역할은 비교적 명백하게 구분되는데, 다시 말해 중국 역사 기술의 전형적 형식인 ‘사전(史傳)’이 소설의 형식적 측면 즉 소설의 문체와 관습을 제공하고, ‘저 세계’에 대한 서술인 ‘지괴(志怪)’는 소설의 내용적 측면 즉 소설의 허구성과 상상성을 제공했다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다.<sup>4)</sup>

3) 인도의 불교가 중국의 서사 문학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는 빅터 메어(Victor. H. Mair), “The Narrative Revolution in Chinese Literature: Ontological Presuppositions”, 김진곤 번역, 『이야기 小說 Novel』, 예문서원, 2001. 불교 서사가 중국의 관방 혹은 민간 신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즐고 「옥황 및 염라 신앙의 형성과 이야기의 역할」, 중국문학, 제39집, 2003, 5월 참조.

4) 일반적으로 중국소설사에서 소설이 갖는 허구성의 근원을 ‘신화’ 내지 ‘지괴(志怪)’와 연결 짓는 것은 노신(魯迅)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그는 『중국소설사략』에서 소설의 역사를 신화-지괴-전기-화본-강사-장회로 이어지는 진화론적 계통론으로 서술했다. 하지만 각각의 서사 장르에 대한 노신의 이해는 현대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단한 것으로 당시 사회에서 그것들이 담당했던 실제적인 서사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신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단순한 기록’에 불과한 지괴를 그가 소설서사의 계보 속에 포함시킨 것은 무엇보다 그것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허구, 즉 상상의 산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노신, 앞의 책, pp.96-133, 참조.) 그러나 서사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지괴는 ‘실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그러나 필자는 사전(史傳)과 지괴(志怪)의 역할을 이렇듯 소설의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전통시기 중국의 귀신 신앙과 귀신 이야기』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귀신 신앙과 이야기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귀신 이야기 즉 지괴(志怪)가 상상 혹은 환상의 서사가 아닌 사실적 신념에 대한 신앙의 서사이며, 이러한 신앙의 서사가 일정한 탈신앙화의 과정을 거쳐 문학서사로 전이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역사서사인 사전(史傳)이 일정한 탈역사화의 과정을 거쳐 문학서사로 전이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역사서사인 사전(史傳)의 내용을 사실적인 것으로 믿고 종교서사인 지괴(志怪)의 내용을 상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대적 과학 이념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이분법적이고 비역사적인 사고일 뿐이다. 중국의 서사 전통은 역사서사와 종교서사에 의해 수립되었고 그로부터 문학서사로 확장되었으며, 그 결과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서사 세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문제는 보이는 ‘이 세계’와 달리 보이지 않는 ‘저

---

대한 기록이란 점에서 진실임을 전제로 읽혀지는 역사나 허구임을 전제로 읽혀지는 소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진실로 읽을 것인가, 허구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줄다리기가 바로 지괴를 구성하는 근본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소현이 지괴를 ‘지식으로서의 서사’라는 말로 정의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괴는 서사 외적인 자기 증명의 형식을 필요로 하며 바로 이 점에서 서사의 형식을 빌고 있으며 오히려 과학적 지식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박소현, 위진남북조 志怪의 서사 특성에 관한 연구 - 志怪 산생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5, pp.67-77.

- 5) 중국 서사 문학의 발전을 역사에서 탈역사화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다. 일찍이 천평원(陳平原)은 『中國敘事模式的轉變』(상해인민출판사, 1988)에서 소설이 지니는 대화론적 혹은 복합 장르적 특성을 서사성과 서정성의 결합으로 파악하고 이를 중국의 역사 서술 전통인 ‘사전(史傳)’과 운문 양식 전통인 ‘이소(離騷)’로 대입시켜 ‘사전’의 형식에 ‘이소’의 내용이 갈마들어 간 것이 곧 중국의 소설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의 중국학자인 루샤오핑(魯曉鵬, Sheldon Hsiao-peng Lu)은 *From History to Fictionality: The Chinese Poetics of Narrative*(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에서 중국의 서사 문학이 탈역사화 되는 과정을 매우 통찰력 있게 분석했다.

세계'를 과연 어떤 방식, 어떤 기제로 서사화하여 '이 세계'와 연동시켰는가 하는 것인데, 그 기저에는 끊임없는 내적 확장을 욕망하는 제국의 서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다.

역사서사, 종교서사, 문학서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중국의 서사 전통 안에는 '제국의 서사'<sup>6)</sup>라는 보다 근원적인 특성이 숨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중국 서사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 II. 제국과 함께 시작되는 서사: 역사서사

중국 역사서사의 근원은 『서경(書經)』과 『춘추(春秋)』로까지 거슬러 올

- 6) 정재서는 「苑圃: 제국 서사의 공간」(중국문학, 제38집, 2002, 11월)이란 논문에서 한대(漢代)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와 '상림부(上林賦)'를 분석하면서 '제국의 서사'라는 용어로 두 작품의 내재적 특성을 개괄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재서의 관심은 제국을 표상하는 이 두 작품의 이면 속에서 끊임없이 길항하는 여러 주변적 힘들의 존재에 있었고, 이로 인해 제국의 단원신화(單元神話, mono myth)를 보증해주지 못하는 두 작품의 공간적 세계, 즉 '苑圃'(황제의 유럽 장소)의 상호텍스트성을 규명하는 데 있었다. 반면 필자는 '제국의 서사'를 '한부(漢賦)'의 경계를 넘어 중국 서사의 가장 중요한 내재 원리를 개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제국의 서사 속에서 끊임없이 길항하는 주변적 힘들의 존재는 제국의 서사를 해체하려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제국의 서사 속에 포섭된, 오히려 제국의 서사를 강화하는, 다양성으로 포장된 균질적 요소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오히려 정재서가 결론부분에서 제기한, 다음과 같은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동감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상호 침투 현상이 인간계와 자연계, 현실계와 상상계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현상들을 제국 이념의 차원에서 지배 권력의 이역 및 자연계·상상계에까지의 침투와 간섭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국 일방의 파괴적 지배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차원에서 사유할 때 우리는 한대의 제국 서사의 성격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기존의 지배-피지배 도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근대 이후 제국주의의 폭력적, 일방적 지배관계와는 다른, 상호 교감하고 반응하는 문화체계가 한 제국에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라지만, 진정한 역사서사의 시작은 오랜 분열 시기를 끝내고 최초로 중국 전역의 통일 제국을 수립한 진한(秦漢) 시대에 와서야 가능했다. 이후 중국 25사(史)의 전형이자 효시가 되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는 한대(漢代)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무제(武帝) 때 완성되었다. 중국 역사 서사 전통을 단 한 번에 수립한 『사기(史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기전체(紀傳體)’라는 창조적인 역사 서술의 형식에 있다.

제왕의 연대기인 본기(本紀)와 제후를 중심으로 한 세가(世家), 역대 제도 문물의 연혁에 관한 서(書), 연표인 표(表), 시대를 상징하는 뛰어난 개인의 활동을 다룬 열전(列傳)으로 이루어진 기전체의 형식은 그 자체로 제국의 입체적 표상이다. 분열된 세계를 통일하고 천하의 인민을 끌어안아야 하는 제국에서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한 것은 제국의 경계와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다. 에드워드 W. 사이드의 선언처럼, 제국은 영토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지만 누가 왜 어떻게 그것을 차지하고 지배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이야기 속에서도이다.<sup>7)</sup> 그러므로 제국 그 자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기전체가 일차적으로 보여주는 제국의 표상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제국이 아니라 그곳에 있어야 하는 존재들, 예컨대 제왕과 제후, 각종 문물이나 신민과 같은 구성 요소들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유기체적 공간으로서의 제국이다. 이 경우 제국의 서사화는 무엇보다 그것을 구성하는 인적·물적 존재들에 대한 선별과 배치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역사의 기록은 곧 제국의 건설이다. 마치 불룩 쌓기와 같은 새로운 세계의 구축이다. 그 속에 기록된 제왕들만이 제국의 제왕이며 열전(列傳)에 포함된 인물들만이 비로소 제국의 신민인 것이다.

이렇듯 제국의 건설과 통합을 위해 수립된 기전체의 역사 기술은 단순한 과거 사실의 기록을 넘어 제국의 현재와 미래를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념적이다. 즉 있는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있어야 할

7)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음, 박홍규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2005, p.21.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매권 말미에 ‘태사공왈(太史公曰)’로 시작되는 사가의 포럼이 『사기(史記)』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후 중국 역사서사 전통의 한 요소가 되는 사가의 비평은 제국이 지향하는 바를 과거 사실에 접합시켜 조정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이민족의 침입이라든지 내부 분열로 인해 제국의 준거와 이념이 흔들릴 때마다 또는 새로운 제국의 건설이 시작될 때마다 지식인들에 의한 역사 다시 불러오기와 재평가, 재서술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별히 혼란의 시기가 아니더라도 중국 지식인들에게 있어 역사는 언제나 작동중인, 살아있는 한 지속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인식의 대상이었다. 역사는 곧 그들을 둘러싼 세계이고 그들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이다. 문집이나 필기 등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그들의 역사 서술은 그들의 세계인 제국을 온전히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었다.<sup>8)</sup>

분열을 끝내고 제국을 건설하며 통합을 해야 했던 시기(이는 다른 각도에서 서술하면, ‘정복을 끝내고 제국을 건설하며 지배를 강화해야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국에 가장 부합되는 ‘기전체’라는 역사 서술의 형식을 통찰력 있게 창조해낸 사마천(司馬遷)은 어떤 의미에서 제국의 절정을 구가했던 가장 강력한 황제 무제(武帝)보다 더욱 제국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마천이 바로 무제에 의해 남성성이 제거된 인물이라는 점은 더욱 아이러니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관인 선천의 뜻을 이어 받아 『춘추(春秋)』를 계승하고 아울러 궁형의 치욕에 발분하여 『사기(史記)』를 지었다’는 그의 고백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들린다.<sup>9)</sup>

8) 전통시대 중국의 지식인들이 시문(詩文)과 같은 글쓰기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했던 역사 전고(典故) 또한 이러한 일상적인 역사 서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들은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역사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는 종종 실제 자신의 맥락을 벗어나 기호화되며 심지어 새로운 내용으로 재창조되기도 한다.

9) 司馬遷, 太史公自序, 『史記』卷130, 中華書局本二十四史.

### Ⅲ. ‘저 세계’에 대한 제국화의 방식: 종교서사

중국에서 ‘지괴(志怪)’로 대표되는 종교서사는 한마디로 ‘저 세계’에 대한 기록이다. 일반적인 제국주의 국가의 입장에서 ‘저 세계’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원주민의 땅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 ‘저 세계’란 단순히 지리적인 차원에서 구분되는 ‘그들(They)’의 땅이 아니라, ‘나(I)’를 중심으로 한 ‘이 세계’와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으면서 명백한 경계로 구분되는 ‘너(You)’의 세계를 가리킨다. 이것은 때로는 아직 제국에 편입되지 않은 이웃의 이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삶의 세계가 아닌 죽음 후 영혼의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인간이 아닌 신의 세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산이나 깊은 바다의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꿈의 세계, 동물의 세계, 심지어는 여성의 세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저 세계’는 매우 균일하고 예측가능하게 통일되어 있는 ‘이 세계’와 달리 매우 이질적이고 불가해적이다. 그러므로 ‘저 세계’에 대한 서사란 우선적으로 이런 이질성과 불가해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다. ‘너’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체험담들이 축적되고 그로부터 발생된 지식으로 ‘저 세계’에 대한 서사는 구축되기 시작한다. ‘나’와 경계하고 있는 ‘너’와 소통해서 ‘나’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끊임없는 ‘나’의 확장으로 ‘너’를 포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이 중원(中原)을 수립하고 한족(漢族)을 형성해온 전 과정의 일관된 방식이었다.<sup>10)</sup> 따라서 중국의 종교서사, 즉 ‘저 세계’에 대한 서사에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저 세계’를 익숙한 ‘이 세계’

10) 일반적으로 ‘중원(中原)’이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개념의 영토적 정체성과 ‘한족(漢族)’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형성된 ‘중화사상’은 소위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The Imagined Community)’ 혹은 에릭 홉스봄의 ‘전통의 창조(The Invention of Tradition)’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다만 끊임없는 경계의 확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해가는 방식이 일반적인 서구 사회의 민족주의와 구분되는 점이라 하겠다.

속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제국의 기획과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제국의 욕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중국의 종교서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 먼저 ‘지식의 서사’로, 이 단계에서는 ‘저 세계’에 대한 관찰과 체험이 단편적으로 기록된다. 다음 ‘구축의 서사’로, 여기서는 ‘지식의 서사’ 단계에서 축적된 ‘저 세계’의 표상들을 바탕으로 ‘저 세계’라는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기호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저 세계’는 비로소 하나의 세계로서 존재하며 자기 논리와 규율을 갖게 된다. 마지막 ‘참여의 서사’로, 이 단계에서 ‘저 세계’는 ‘이 세계’와의 소통을 일상화하며 ‘이 세계’와의 동질성을 획득하기 시작한다.<sup>11)</sup>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래 ‘너’의 세계였던 ‘저 세계’는 점차 그 순수성과 이질성을 상실하고 ‘나’의 세계로 편입되어 들어온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세계’의 확장으로 귀결되며 전보다 더욱 크고 풍요로워진 ‘이 세계’는 다시 새로운 경계에 놓이게 된 또 다른 ‘저 세계’에 대한 제국화의 음모를 준비한다. 이러한 중국적 제국주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나’로부터의 확장이라는 데에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원격 식민지 구축을 전형으로 삼았던 서구 제국주의와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서구 제국주의의 목적이 멀리 떨어진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권리를 나의 권리로 대체하는 배제와 강탈의 제국주의였다면, 중국의 제국주의는 ‘이 세계’와 ‘저 세계’의 차이점을 근본적으로 무화(無化)시키는 어찌 보면 더욱 강력한 제국주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서구의 제국주의가 배제와 강탈을 위해 ‘그들’을 끊임없이 ‘나’로부터 분리하고 악의적이고 열등한 대상으로 인식해야 했다면, 중국의 제국주의는 차이를 무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확장하고 ‘너’를 포섭하여 동질적인 존재로 변화시켜야 했다. ‘지괴(志怪)’라는 종교서사를 통해 인식되고 구축되고 마

11) 중국의 종교서사에 나타나는 이상의 세 가지 단계는 줄고 『전통시기 중국의 귀신 신앙과 귀신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 과정은 곧 신앙의 서사에서 탈신앙의 서사로 변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침내 ‘이 세계’화된 ‘저 세계’는 중국적 제국주의의 특징인 내적 확장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 IV. 제국의 즐거움: 문학서사

제국화의 의도를 가진 서사 전략에 의해 ‘이 세계’로 편입된 ‘저 세계’는 그 자체로 중국을 구성하는 하나의 공간적·지리적 요소가 된다. 사람들은 ‘저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 ‘이 세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세상이 아니라 ‘이 세계’의 한 부분을 이루는 하위 공간으로 대하게 된다. 이제 ‘저 세계’에만 통하는 ‘저 세계’의 규율과 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포섭을 통해 확장된 ‘이 세계’의 규율과 법칙이 ‘이 세계’와 ‘저 세계’를 통틀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저 세계’를 포섭함으로써 더욱 확장된 ‘이 세계’의 풍요로움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은혜와 기쁨을 선사한다.

매 시기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제국의 유지를 위해 노심초사하며 시종일관 진지했던 상층의 주류 지식인들과는 달리, 송대(宋代) 이후 성장한 상인 계층과 명청대(明清代) 급속하게 확대된 중간층 지식인들은 제국의 서사전략에 의해 확장된 ‘이 세계’의 새로운 공간들을 진정으로 유희할 줄 알았다. 명대(明代)에 나온 소위 ‘사대기서(四大奇書)’들은 모두 이러한 유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서유기(西遊記)』는 ‘저 세계’의 가장 전형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신들과 불교·도교의 세계를 적극 활용하여 한바탕 신명나는 문학적 유희를 펼쳤다는 점에서 상당히

12) 중국 신화와 지괴(志怪) 연구에 있어 대표적 학자로 탁월성을 보여준 정재서는 주로 이들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단일한 유가적 세계에 대한 균열의 힘, 이질적인 주변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그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괴에 나타나는 이러한 반유가적 이질성들은 이미 제국의 영토로 들어와 타자로서의 파괴력을 상실한 내부의 한 요소로 보인다. 마치 제국의 균형감과 풍요로움을 위해 초빙된 손님처럼.

각별하게 읽혀지는 작품이다.

더욱이 『서유기』는 인간이 지닌 몇 가지 본성을 유형화하여 네 명의 등장인물들에게 각기 부여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보편적 문제를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그에 대한 솔직하고 유희적인 접근법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유쾌한 성찰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재미와 오락으로서의 문학이라는 개념에 매우 적합한 작품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문학서사가 여전히 역사 지향이라는 영향 속에 개인의 사회적 의미나 처세 혹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에 몰두하는 것과는 다른 점인데, 이러한 『서유기』의 특성은 현실 세계가 아닌 신(神)들의 세계 속에 작품의 배경을 설정하고 기본적으로 싸움 즉 대결의 구도를 통해 손오공의 내면적 성장을 그림으로써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다.

한편 상대적으로 현실 세계의 소재와 인물을 다루고 있는 『삼국연의(三國演義)』, 『수호전(水滸傳)』, 『금병매(金瓶梅)』 등도 그 각각의 작품 내부로 들어가 보면, 역사서사로 확립된 ‘이 세계’와 그것의 포섭 내지 확장의 대상인 ‘저 세계’ 사이의 제국주의적 소통과 동질화의 기제가 근원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삼국연의』는 기본적으로 역사 다시 불러오기와 재서술의 전형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삼국시기의 역사를 통해 원말명초 지식인의 세계관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는 이 작품은 실제 역사에 대한 변형과 왜곡을 서슴지 않는다. 문제는 과거 역사의 재현이 아니라 미래 역사의 창조이기 때문이다.

『수호전』은 양산박(梁山泊)에 모여든 108인의 도적이자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양하고 개성적인 경력과 성격을 지닌 이들은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이미 반사회적인 인간으로 전락하여 송강(宋江)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세계 즉 양산박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양산박의 세계는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저 세계’이다. 그들은 이 세계와 격리된 저 세계의 사람이지만 도적으로서의 행위 또는 영웅으로서의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이 세계와 소통한다. 이는 마치 저 세계의 귀신들이 재앙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도움을 주는 양면적인 존재로 이 세계와 소

통하는 것과 같다.

『금병매』 또한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여성의 성적 욕망으로 채워진 서문경(西門慶)의 집안을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저 세계로 상정할 수 있다. 여성의 성적 욕망은 남성에게 있어 치명적인 동시에 매혹적인 욕망의 대상이다. 그런 만큼 이질적이고 불가해적인 대상이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전통시기 중국에서 거의 모든 서사 행위에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제국의 전략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서사 작품은 없다는 것이다. 제국의 존재란 공기와도 같아서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한 절대로 그것을 타자화할 수 없다.<sup>13)</sup>

## V. 제국에의 추억: 서사의 복원과 재생산

그렇다면 오늘날 중국의 서사는 그들의 서사 전통 속에 본원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제국의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물론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19~20세기에 이르는 동안 서양 제국주의와 일본으로부터 유린당하는 치욕의 세월을 보내고 내부 분열의 시기를 지나 이제 다시 제국으로 통일된 중국은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다시금 ‘대국의 굴기(崛起)’<sup>14)</sup>를

13) 한편 명청대(明清代) 백화소설(白話小說) 이전에 당대(唐代)의 전기(傳奇) 작품에서도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아우르는 문학서사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당(唐) 이전 시기 다양한 지괴(志怪) 서사를 통해 탐색된 저 세계의 존재들이 많은 전기(傳奇) 작품 안에서도 문학적으로 연계되고 소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를 본격적인 문학서사의 출현으로 보는 데에는 다소 조심스런 태도가 필요하다. 전기에서 다루지는 저 세계의 존재는 명청대 문학서사에서 나타나는 유희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의 성격이 미약하며 오히려 이념 과잉의 진지한 알레고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홍상훈은 이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소설 문체 확립으로서의 전기가 지니는 문학적 위상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당 전기는 당시 일련의 논의 속에서 엄격해진 역사서사 개념에 의해 철저히 주변부로 밀려나있던 비역사서사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존재 논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북송 초까지의 일시적인 번영을 누리다가 실질적으로 그 맥이 끊어져버린 ‘가능성’의 장르라는 것이다.(홍상훈, 앞의 논문, pp.123-132)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일상적인 사회적 서사 활동들(특히 매체를 통한)은 과거 찬란했던 제국에의 추억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예컨대 베이징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우푸와(五福娃)’는 한대(漢代) 초기 제국의 우주론으로 확립된 음양오행설의 서사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우주론적 서사 형식은 무엇보다 현재 중국이 과거의 제국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한 중심에서 전 우주적 영토와 정신을 그 품 안에 품고 있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표방한다. 특히 각 지역의 후보 마스코트를 먼저 제출하게 한 후 일정 기간 경합을 통해 다섯 개의 마스코트로 최종 확정된 사전 이벤트의 설정은 제국의 일부분으로서 각 지역의 소속감을 재확인시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대의 혜택을 받은 것은 티벳과 칭하이(靑海)의 대표 동물로 제출된 ‘티벳 영양(藏羚羊)’이었다.<sup>15)</sup>

한편 ‘대국의 굴기’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우주 개발은 이러한 제국에의 추억을 부추기는 매우 주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얼마 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직후 발사된 중국 최초의 달 탐사 위성의 이름은 ‘창어(嫦娥)’였다.<sup>16)</sup> 잘 알려진 대로 ‘창어(嫦娥)’는 고대 서왕모(西王母)의 불사약을 훔쳐 달나라로 달아나 두꺼비로 변한 여선(女仙)의 이름이다. 근 2500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축적되고 강화된 제국의 서사들은 오늘날 새로운 제국을 꿈꾸는 중

14) ‘대국굴기(大國崛起)’는 중국 CCTV가 3년에 걸쳐 야심차게 준비한 총 12편의 역사 다큐멘터리로 2006년 11월 13일~24일 방영되어 중국 내외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내용은 15세기 이후 세계를 호령했던 9개 대국(大國)의 발흥과 패망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들이 당시 세계적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담아냈다. 한국에서는 EBS에서 2007년 1월 29일~2월 10일 방영됐다.

15) ‘우푸와(五福娃)’는 2005년 11월 11일, 북경 올림픽 1000일을 앞두고 정식으로 공표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중국 CCTV ‘우푸와’ 홈페이지에 올려진 기사문 참조(<http://www.cctv.com/aoyun/mascot/index.shtml>)

16) 중국 최초 달 탐사 위성 창어(嫦娥) 1호는 2007년 10월 24일에 발사되었다.

국에 수많은 서사적 자료들을 제공한다.

<표 1>

이름	색깔	원형	내원	표상	상징
환환(歡歡)	홍	성화		열정	북경의 올림픽에 대한 사랑
징징(晶晶)	흑	팬더		기쁨	북경의 세계에 대한 우호와 열정
베이베이(貝貝)	남	魚娃	江河湖海	번영	세계 평화 발전에 대한 축복
잉잉(瑩瑩)	황	藏羚羊	草原	건강	중국인민의 자연생태에 대한 보호와 사랑
니니(妮妮)	록	京燕	하늘	행운	중국인민의 아름다움과 이상에 대한 추구

이러한 서사적 자료들은 적어도 지금 현재의 중국인들에 있어서는 제국에 대한 향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평가나 재서술과 같은 형태의 다시 불러오기가 아니라 충실한 복원의 형태로 현재화된다. 이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방송 드라마로 근 20년 만에 다시 찍는 『홍루몽(紅樓夢)』의 오픈 캐스팅을 전국 규모로 진행하면서 엄청난 대중들의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외화된다. 과거의 서사들이 21세기 그 유례가 없는 복원의 봄(리메이크도 아닌)을 이루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제국의 서사 전략을 그대로 모방한 현대판 제국의 서사들이 부지런히 재생산되고 있다. 한국의 언론에 ‘중국판 마지막 잎새’로 소개되기까지 한 신월(欣月)의 고사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006년 3월 22일 골수암에 걸려 시력을 잃은 8세 소녀 신월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천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의 공공관계대학 운동장에서 가상의 천안문 광장 국기 게양식을 연출한다. 이 소녀는 천안문의 국기 게양식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의사들이 장장 958킬로미터의 여행이 무리라고 권고해 시민들이 가상 국기 게양식

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소녀에게는 모든 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 실제 버스와 승객들이 동원되었다. 5시간 동안의 가상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수, 안내원, 여행객, 외국인, 경찰 등의 역할과 대사가 주어 진 시민들은 각본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오후 1시 30분 공공관계대학 운동장에 마련된 가상의 천안문 광장에 도착한 소녀는 꿈에 그리던 국기 게양식을 듣게 된다.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중국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인터넷 게시판 등을 뜨겁게 달궜다. 매체는 이를 놓치지 않고 이후 소녀의 근황을 수시로 전하면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확장해갔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중국의 5월 9일자 신문에는 전날 이른 아침, 베이징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시력을 조금 회복한 소녀가 의사와 간호사들의 호위 속에 실제 천안문 광장에 나와 두 번째로 국기 게양식을 보는 장면이 대서특필됐다.

이러한 신웨(欣悅)의 고사는 지금의 중국이 영광의 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표상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표상들을 구축하기 위해 제국의 서사는 언제나 매체와 대중들을 동원한다. 이 시점에서 중국의 주변국의 하나인 한국에 태어나 살고 있는 중국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다소 황당한 질문을 던져본다. 앞으로 중국의 제국주의가 내적 확장의 대상으로 삼을 ‘저 세계’는 과연 어디인가? 그들의 서사적 포섭의 대상은 우리인가 아니면 달나라인가?

#### < 參考文獻 >

- 魯迅 著, 조관희 역주, 『중국소설사략』, 살림출판사, 1998.  
 서경호, 『중국소설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陳平原, 『中國敘事模式的轉變』, 上海人民出版社, 1988.  
 루샤오핑 지음,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중국의

- 서사학』, 길, 2001.
- 김진곤 편역, 『이야기 소설 Novel』, 예문서원, 2001.
-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음, 박홍규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2005.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정재서, 「苑囿: 제국 서사의 공간」, 중국문학, 제38집, 2002, 11월.
- 안정훈, 「고대 중국의 소설 관념과 기원에 대한 연구 -고대의 목록서에 보이는 역사와의 관련성을 찾아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 박소현, 「위진남북조 志怪의 서사 특성에 관한 연구 -志怪 산생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5.
- 홍상훈,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 박지현, 「옥황 및 염라 신앙의 형성과 이야기의 역할」, 중국문학, 제39집, 2003, 5월.
- 박지현, 『전통시기 중국의 귀신 신앙과 귀신 이야기 -『太平廣記』 鬼部に 나타나는 신앙의 서사와 탈신앙의 서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司馬遷, 「太史公自序」, 『史記』 卷130, 中華書局本二十四史.
- 왕지아평 외 7인 지음, 양성희·김인지 번역, 공병호 감수·해제, 『대국굴기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의 패러다임』, crédu, 2007.
- 중국 CCTV '우푸와' 홈페이지 <http://www.cctv.com/aoyun/mascot/index.shtml>

## &lt;Abstract &gt;

Chinese narrative, which had been originally developed under the strong impact of historical writing, transformed itself into a religious narrative, *zhiguai*, along with an emerging narrative desire for “the Other World,” influenced by Buddhism that had been introduced to China in the Eastern Han times. This sort of narrative was expanded from historical and religious narrative to literary narrative, and in this process, it established the mode of “narrative of the empire,” which captured the world of the periphery through incessant internal expansions by playing literary games, in which “The Other World” paradoxically represented “This World.”

“Narrative of the empire,” crucial element of Chinese narrative tradition, has still functioned as a strong narrative mode in contemporary China, where the emergence of the new empire is dreamt of. In particular, everyday narrative practices through mass media are closely interconnected with the memory of splendor of the empire in the past. Previous narratives are modernized by a means of full-pledged reconstruction, while the modernized “narrative of the empire,” literally emulating its past strategy, are continuously reproduced.

주제어 : Historical Narrative, Religious Narrative, Literary Narrative, Imperialism, *Jizhuanti*[紀傳體], *Wufuwa*[五福娃]